

고려사이버대 최초 국외 한국어교육실습

"외국인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국외 실습경험 매우 유용"



▲ 지난달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러시아연방 따따르스탄공화국 카잔연방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어실습 경험을 한 19명의 고려사이버대 실습생들.

<겨레일보 www.koreans.ru>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19명이 2019년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러시아연방 따따르스탄공화국 카잔시 소재 카잔연방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어실습 경험을 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한국어 교육실습의

목적에 따르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수적 교과목으로서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현장 실습을 통해 한국어 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교실 운영 및 교육 행정 등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기 위해 국외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게 된 것이다.

■ 강의 시연

한국어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국외 실습 기관은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생을 지도와



▲ 강의 시연



▲ 참관수업 후



▲ 한국 다도 시연

관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야 실습대상 대학이 될 수 있다.

■ 참관수업 후

카잔연방대학교와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17년 10월 30일 교류협약을 통해 카잔연방대에서의 한국어 실습이 가능하게 되어 3학년이상 학생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번 실습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 실습단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현지 공무원, 은행원, IT기업 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주경야독으로 한국어교원을 목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총 450시간의 한국어교육 참관수업 및 한국어 강의실습을 이수하였다. 특히 강의 참관은 한국어 학습자 수준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반을 골고루 참관하였다.

■ 참관수업

이번 실습의 현장지도자인 카잔연방대학교 교영철 교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에서 국외 실습경험은 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참관 및 강의 시연을 통해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 한복입기

되었고, 학생들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함에 미래 한국어 교육 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 라고 했다.

이 실습단은 오전에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동안 카잔연방대학교 학생들은 한국문화를 직접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국차문화 시연, 보자기공예, K-pop, 한국전통부채춤의 교육을 받았고, 한복입기와 한국전통놀이인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 한국 다도 시연

아울러 실습단은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증정한 한국의 문학 작품집과, 학생들이 준비한 한복 10벌, 붓 20개, 부채 20개, 투호놀이 기구, 윷놀이 기구들을 카잔연방대학교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위해 기증하였다.

한편 카잔 문화탐방 시간에 카잔의 크레믈린과 정교회 관련 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하면서, 현지 학생들에게 1:1 한국어회화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카잔연방대학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카잔 농림부

이번 참관단의 백혜진교사는 "38년 동안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 다문화 가족들에게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지도와 더불어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사될 목적으로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현지 한국어 교수들의 강의 능력이 훌륭했고 학생들도 학구열이 대단했으며, 특별히 고급반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대부분 5-6급으로서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터득했고, 아울러 교육목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자극을 받고 가게 되었다"라고 했다.

카잔연방대학교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로서, 1804년 러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카잔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톨스토이와 레닌이 수학했으며 학생수는 44,000명이다.

카잔연방대학교는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2016년 12월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과학 기술 발전 전략에 관한 법령'에 서명한 러시아연방의 러시아 대학교 5개가 세계대학순위TOP 100을 목표로 하는 "5-100 프로젝트"에 속하여, 연구 및 교육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 향상 등의 발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관련 전공이 한국어, 한국어문학, 한국역사, 한국경제, 국제관계, 지역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러시아연방에서 가장 많은 3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 보자기 공예



▲ K-pop



▲ 제기차기